

# CBWF 이슈페이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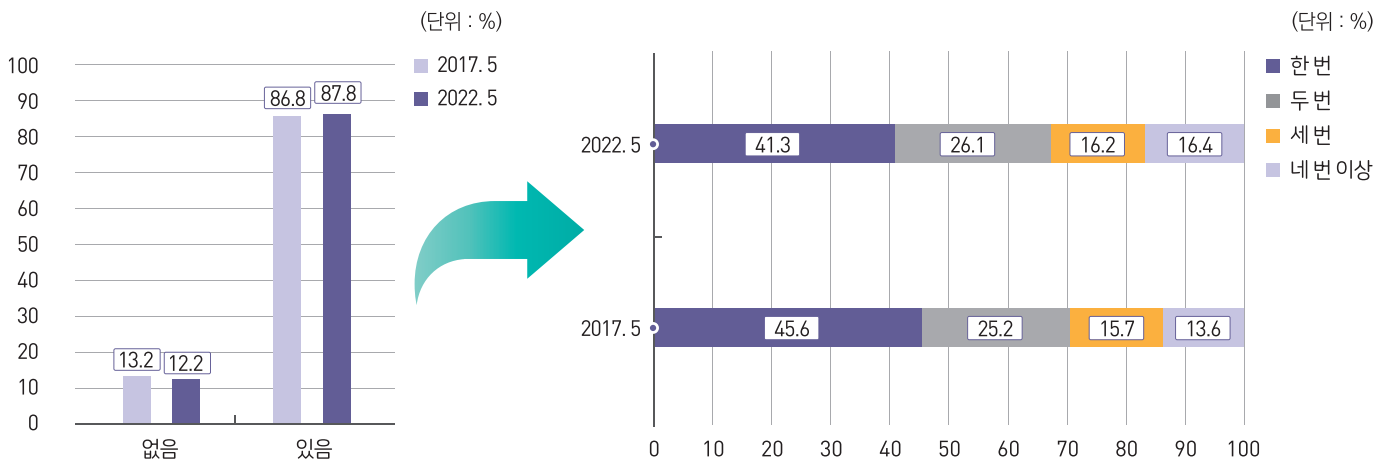
발행인 | 박혜경    발행일 | 2023. 5. 30.    발행처 | (재)충북여성재단

## 충북 2039 청년세대 경제활동 주요 통계와 성별차이

박민정   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

### 1. 전국 청년세대의 취업활동

#### 1) 청년세대(15-29세)의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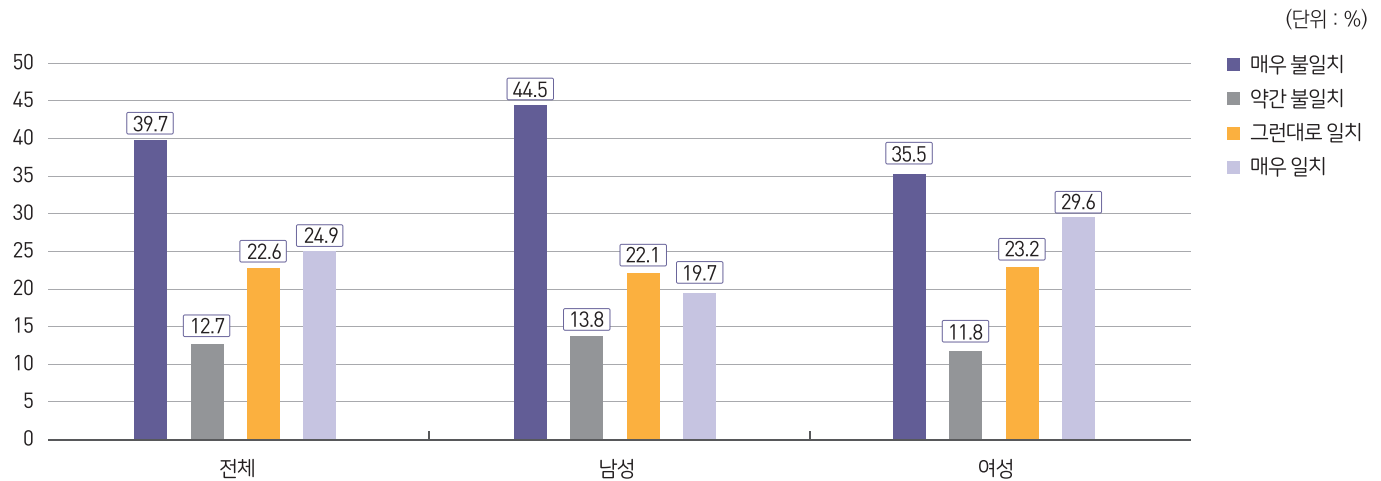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 그림 1 ] 청년세대(15-29세)의 취업경험 횟수

- 2022년 전국 청년세대(15-29세)의 87.8%가 취업을 경험하였고 '17년(86.8%) 대비 1.0%p 증가함
- 2017년과 2022년 취업을 경험한 청년층의 취업경험 횟수는 한 번인 경우가 40% 이상으로 가장 많으나, 한 번인 경우의 비중은 '17년(45.6%) 대비 '22년(41.3%) 4.3%p 감소하였고 두 번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증가함

## 2) 청년세대(15-29세)의 첫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
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22)

[그림 2] 전국 성별 청년 첫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

- 성별 청년 첫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을 보면 ‘매우 일치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9.9%p 높고, ‘매우 불일치’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9.0%p 높음

## 3) 청년세대(15-29세)의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사항

[표 1] 2017년과 2022년의 청년세대(15-29세)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사항 (단위 : 천명)

구분	2022							
	전체	직업교육 훈련	취업관련 시험준비	그냥시간 보냄	여가시간	구직활동	육아, 가사	기타
전체	1,330	61	487	342	78	140	102	121
남성	663	34	253	202	27	80	5	62
여성	668	27	234	141	51	60	97	5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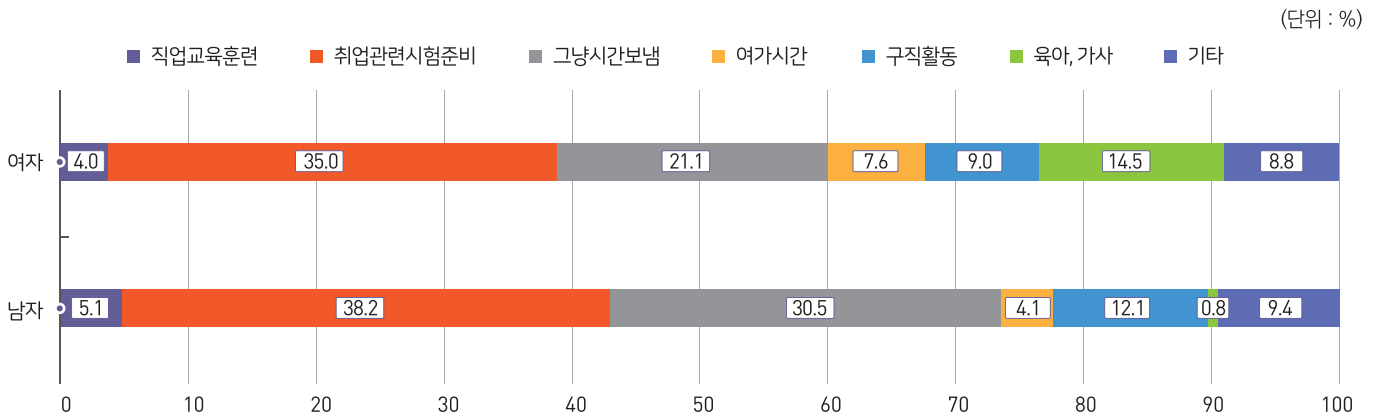
  

구분	2017							
	전체	직업교육 훈련	취업관련 시험준비	그냥시간 보냄	여가시간	구직활동	육아, 가사	기타
전체	1,444	47	509	252	72	184	211	169
남성	666	28	257	141	27	104	2	107
여성	779	19	252	112	44	80	210	63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22)

- 2022년 미취업 청년의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을 보면, ‘취업 관련 시험 준비’가 가장 높고 ‘그냥 시간 보냄’, ‘구직활동’ 순으로 나타남
  - 미취업 청년의 ‘취업 관련 시험 준비’를 하거나 ‘구직활동’을 하는 비율의 합은 ‘17년 48.0%에서 ‘22년 47.1%로 0.9%p 감소, ‘그냥 시간보냄’은 ‘17년 17.5%에서 ‘22년 25.7%로 8.2%p 증가함

#### 4) 청년세대(15-29세)의 성별 미취업기간 주요 활동 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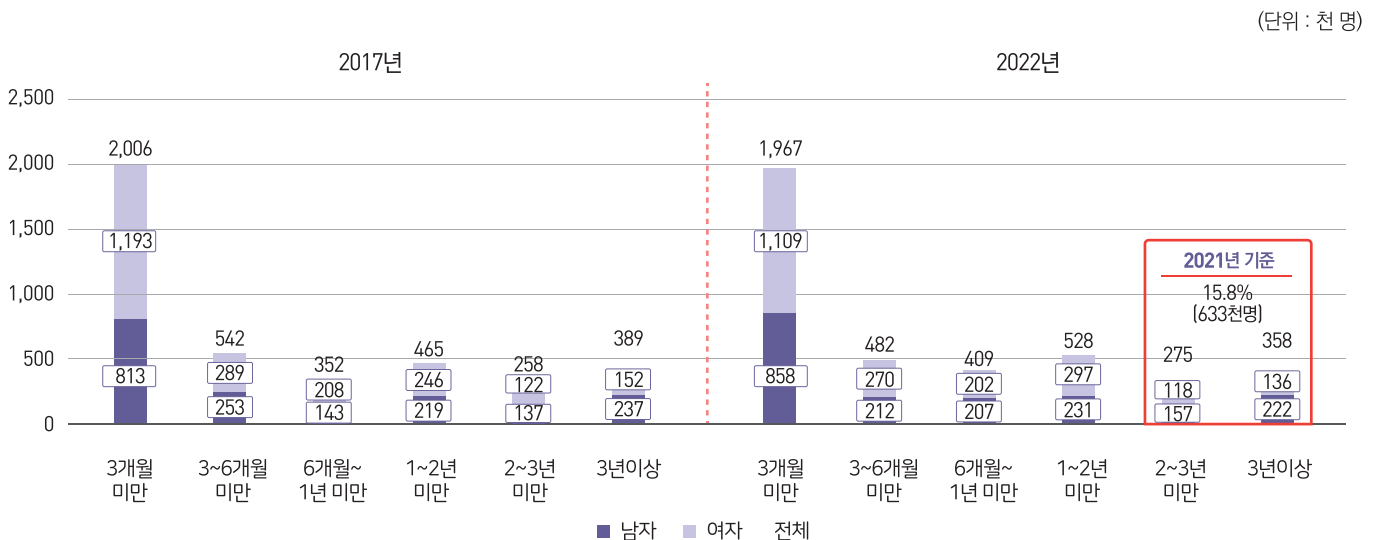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22)

[그림 3] 전국 성별 미취업 청년의 주요 활동

- 2022년 성별 미취업 청년의 주요 활동을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‘그냥 시간보냄’ 응답이 9.4%p 더 높고, 여성은 남성에 비해 ‘육아·가사’ 응답이 13.7%p 더 높게 나타남
  - 여성, 남성 모두 ‘취업 관련 시험 준비’가 각각 35.0%, 38.2%로 가장 높음

## 2. 전국 청년세대의 첫 일자리

### 1) 청년세대(15-29세)의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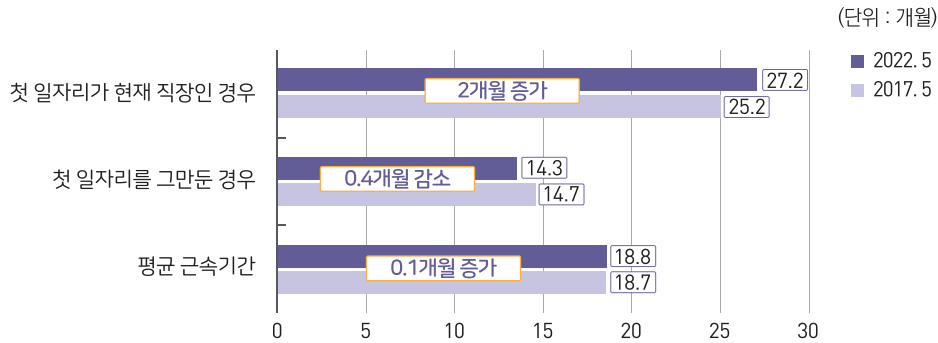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4] 전국 청년세대(15-29세)의 첫 취업 소요기간

- 2022년 전국 청년세대(15-29세)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으며, 남성은 13개월 여성은 9개월로 2017년과 동일함
  - 개월 수 별로 살펴본 결과, 3개월 미만을 응답한 청년은 남성 1,109천 명, 여성 858 천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첫 취업까지 2년 이상이 걸린 청년은 15.8% 수준으로 나타났음
  - 2017년에 2년 이상 소요한 청년의 비중은 16.1%로 2022년 0.3%p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## 2) 청년세대(15-29세)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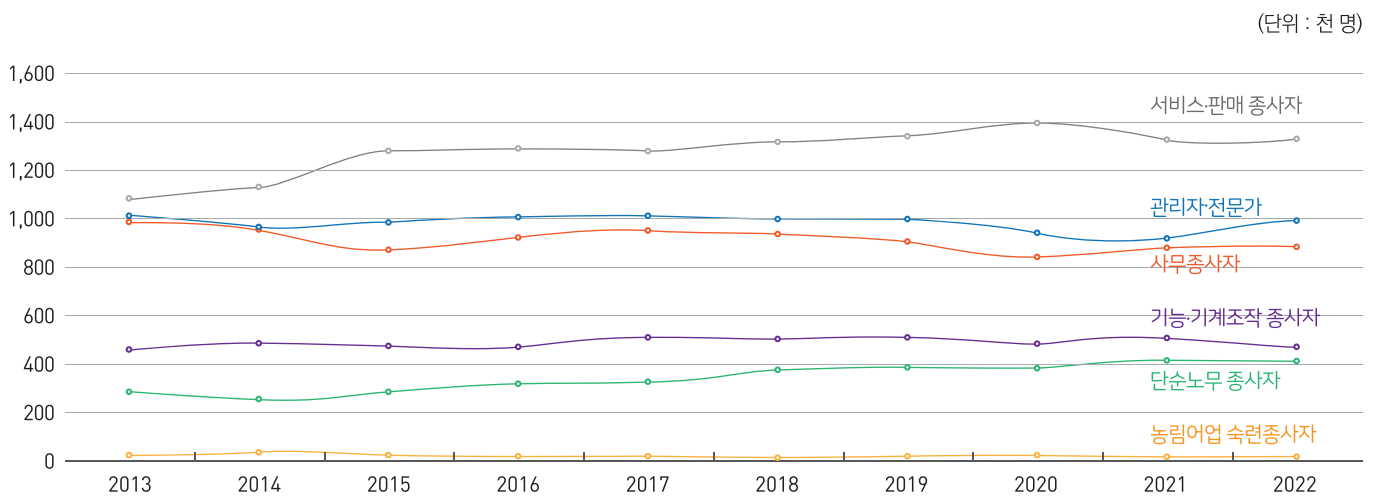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5] 전국 청년세대(15-29세)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

-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,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약 1년 6개월임
  -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'17년 대비 '22년 0.4개월 감소하였으나 첫 일자리가 현재 직장인 경우 2개월 증가함

## 3) 청년세대(15-29세)의 연도별 첫 일자리 직종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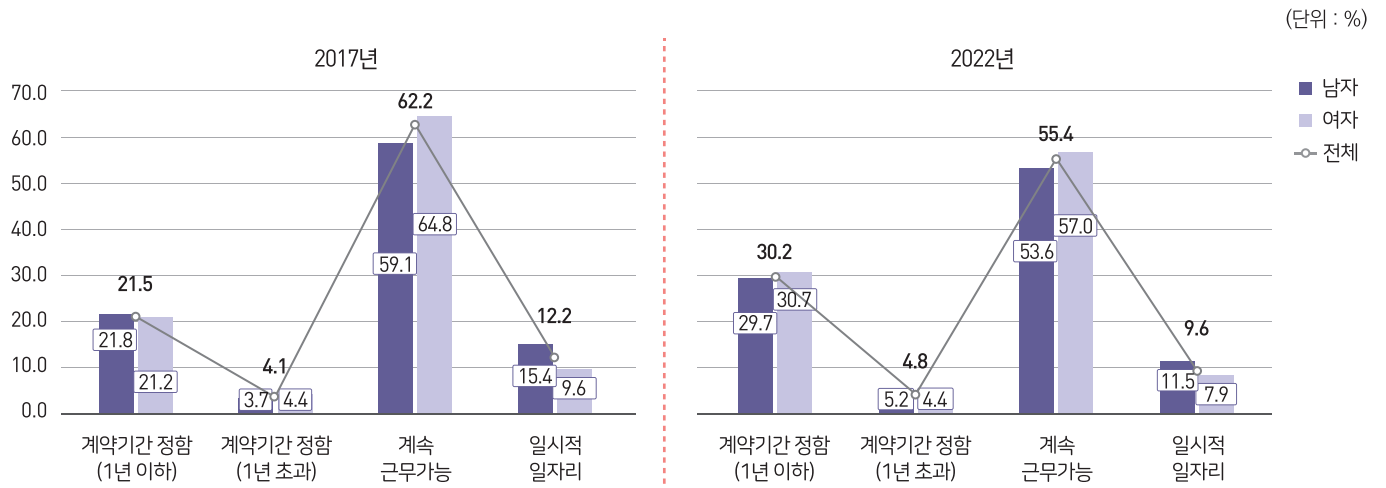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22)

[그림 6] 청년세대(15-29세) 연도별 첫 일자리 직종 추이

- 청년세대 첫 일자리는 2022년까지 서비스·판매 종사자가 1,333천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(1,084천 명)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  - '서비스·판매' 외 '단순노무' 직종에서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

#### 4) 청년세대(15-29세)의 성별 첫 일자리 임금근로자 형태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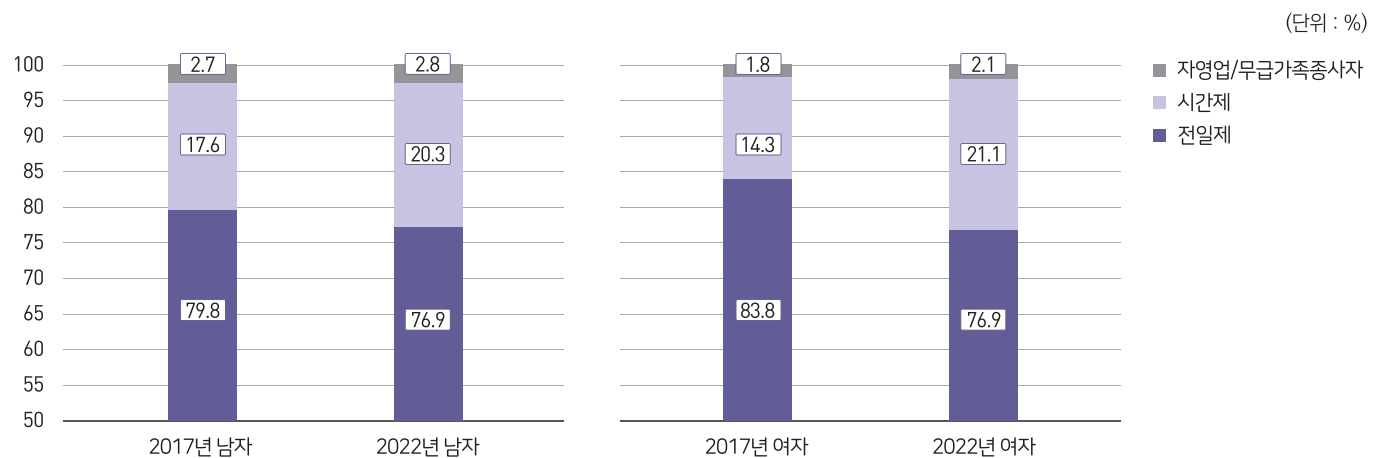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7] 청년세대(15-29세) 성별 첫 일자리 임금근로자 형태별 비중

- 2022년 청년세대의 첫 일자리 임금근로자는 계속근무가능한 일자리가 55.4%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나, 2017년 62.2%에 비해 6.8%p 감소하였음
  -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(계속근무가능, 일시적) 일자리는 감소하였으나, 계약기간을 정한 일자리의 경우 1년 이하 8.7%p, 1년 초과 0.7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#### 5) 청년세대(15-29세)의 성별 첫 일자리 근로형태별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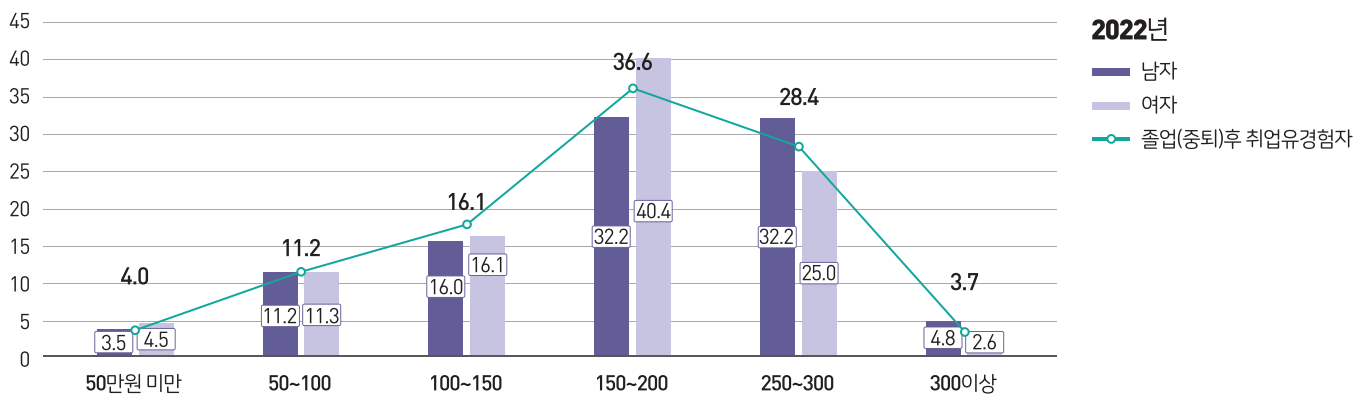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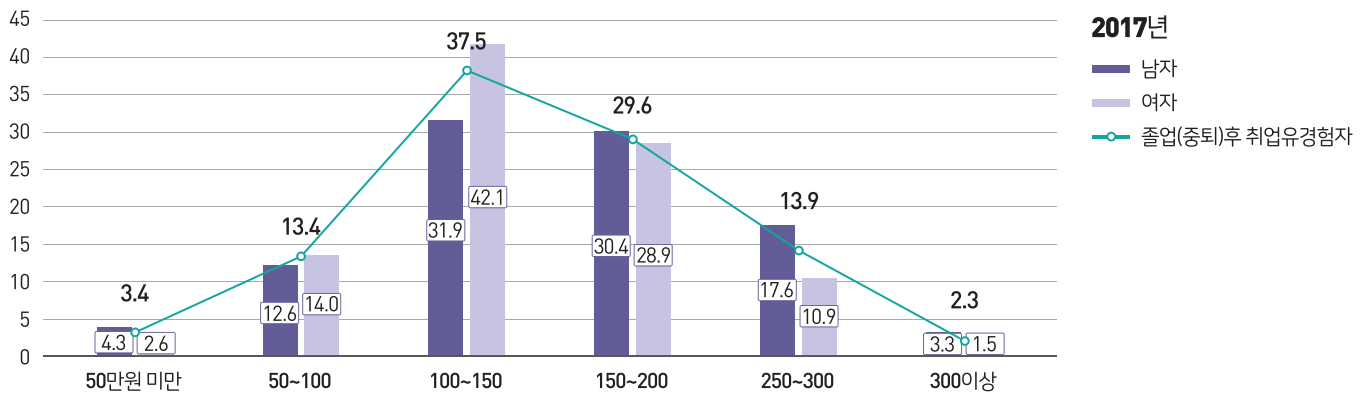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8] 청년세대(15-29세) 성별 첫 일자리 임금근로자 형태별 비중

- 2022년 청년세대의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전일제 근로형태가 76.9%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나, 2017년 대비 남성 2.9%p, 여성 6.9%p 감소하였음
  - 청년 남성의 경우 시간제, 전일제 근로형태에서는 2017년에 비해 각각 2.7%p, 0.1%p 증가하였음
  - 청년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시간제, 전일제 모두 각각 6.8%p, 0.3%p 증가하였음

## 6) 청년세대(15-29세)의 성별 첫 일자리 당시 임금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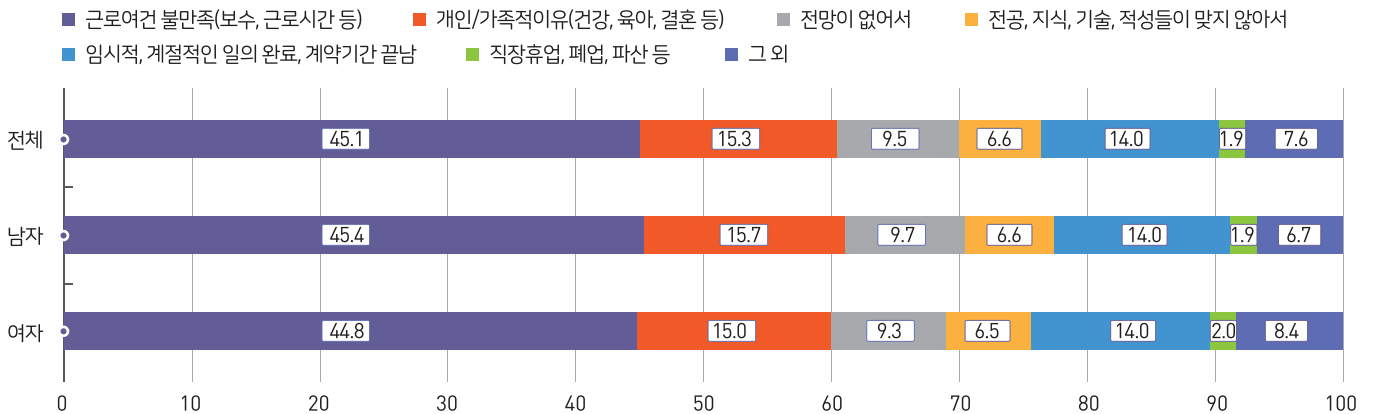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9] 청년세대(15-29세) 성별 첫 일자리 임금

- 2022년 청년세대의 첫 일자리 당시 임금은 남성의 경우 150~200만 원 미만과 200~300만원 미만이 각각 32.2%로 가장 많았으며, 여성의 경우 150~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  - 2017년은 청년세대의 임금 수준이 100~15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7년 대비 2022년에 청년의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증가폭은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

## 7) 청년세대(15-29세)의 성별 첫 직장 퇴사 사유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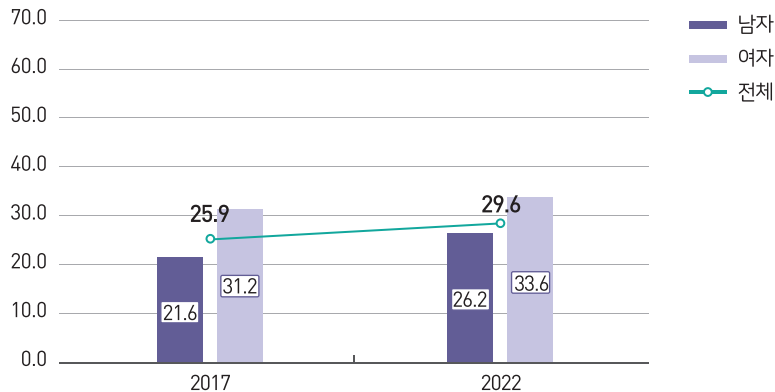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10] 청년세대(15-29세) 성별 첫 직장 퇴사 사유

- 퇴사 사유는 ‘근로여건 불만족(보수, 근로시간 등)’이 가장 높았으며, ‘개인/가족적 이유(건강, 육아, 결혼 등)’, ‘임시적, 계절적인 일의 완료, 계약기간 끝남’ 순으로 높았음
  -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퇴사 사유는 항목별 비중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

## 8) 청년세대(20-39세)의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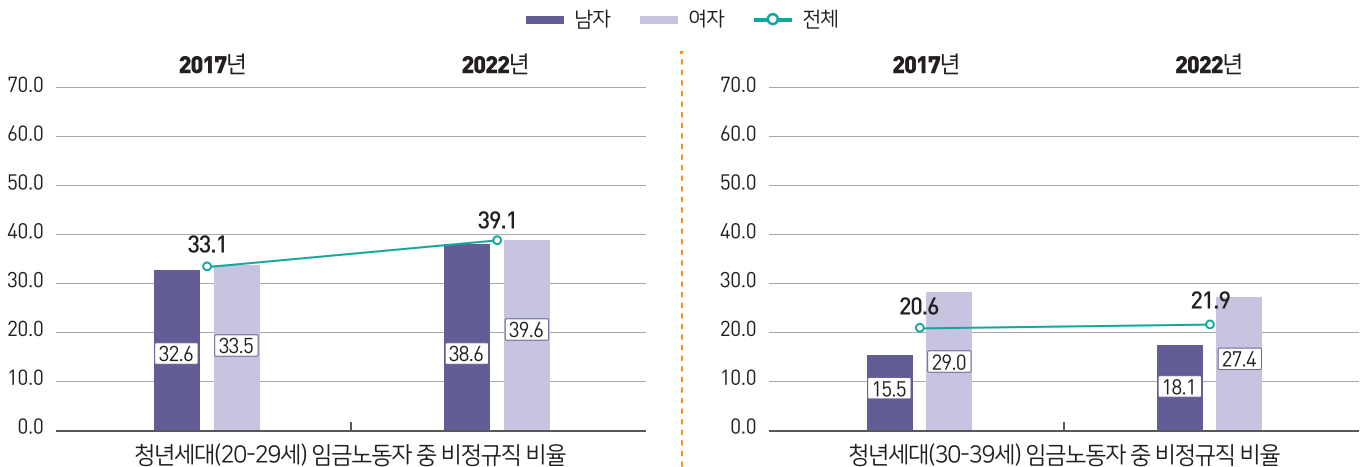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22)

[그림 11] 청년세대(20-39세)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

- 청년세대(20-39세)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29.6%, 남성 26.2%, 여성 33.6%로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2017년 대비 전체 3.7%p, 남성 4.6%p, 여성 2.4%p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여성에 비해 청년 남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

## 9) 청년세대(20-29, 30-39세)의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

(단위 : %)



자료 :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(2017, 2022)

[그림 12] 청년세대(15-29, 30-39세)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

- 청년세대 중 20-29세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39.1%, 남성 38.6%, 여성 39.6%로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1.0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2017년 대비 전체 6.0%p, 남성 6.0%p, 여성 6.1%p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 - 전체 청년세대와 비교하여 20-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청년세대 중 30-39세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21.9%, 남성 18.1%, 여성 27.4%로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2017년 대비 전체 1.3%p, 남성 3.6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1.6%p 감소하였음
  - 20-29세 청년층과 비교하면, 2022년 기준 남성은 20.5%p, 여성 12.2%p 낮은 것으로 나타남

## 3. 충북 청년 경제활동 인구현황

### 1) 전국 및 충북 2039 청년 인구(2022년)

[표 2] 전국 및 충북 2039 청년 인구(2022년)

(단위 : 천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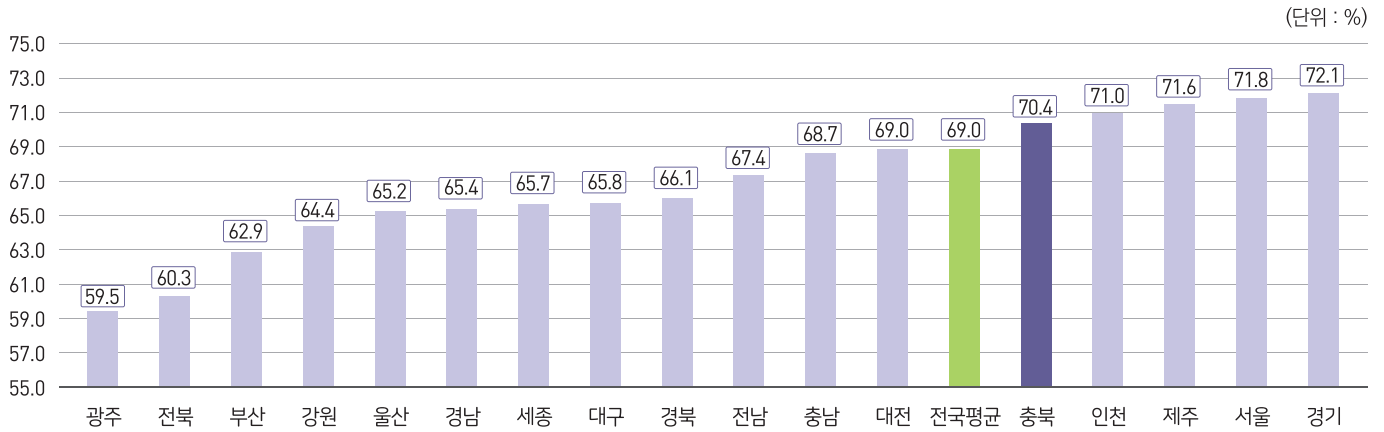
	전국	충북
2039세대 청년인구	13,244	406
경제활동 2039세 청년인구	9,614	298
경제활동참가율(%)	72.6	73.4
취업자수	9,143	286
고용률(%)	69.0	70.4
20-29세 고용률(%)	60.4	63.9
30-39세 고용률(%)	77.0	77.0
비경제활동인구	3,630	108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

- 2022년 충북 2039 청년세대 취업자 수는 286천 명, 고용률은 70.4%(20~29세 63.9%, 30~39세 77.0%)임  
 - 충북 2039 청년 인구 406천 명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청년은 298천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3.4%임

## 2) 시도별 청년세대(20-39세) 고용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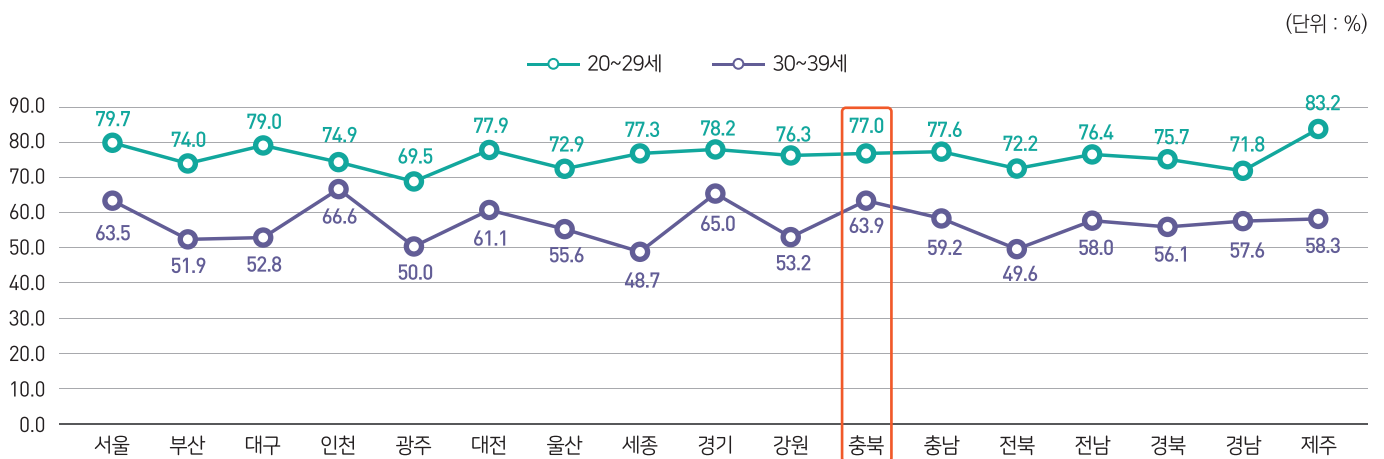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3] 시도별 청년세대(20-39세) 고용률

- 2022년 충북 2039 청년세대의 고용률(70.4%)은 전국 평균(69.0%)보다 높은 수준임  
 - 17개 시도별 2039 청년세대 고용률은 경기(72.1%), 서울(71.8%), 제주(71.6%) 순으로 높고, 광주(59.5%)가 가장 낮은 수준임

## 3) 시도별 청년세대 연령대별 고용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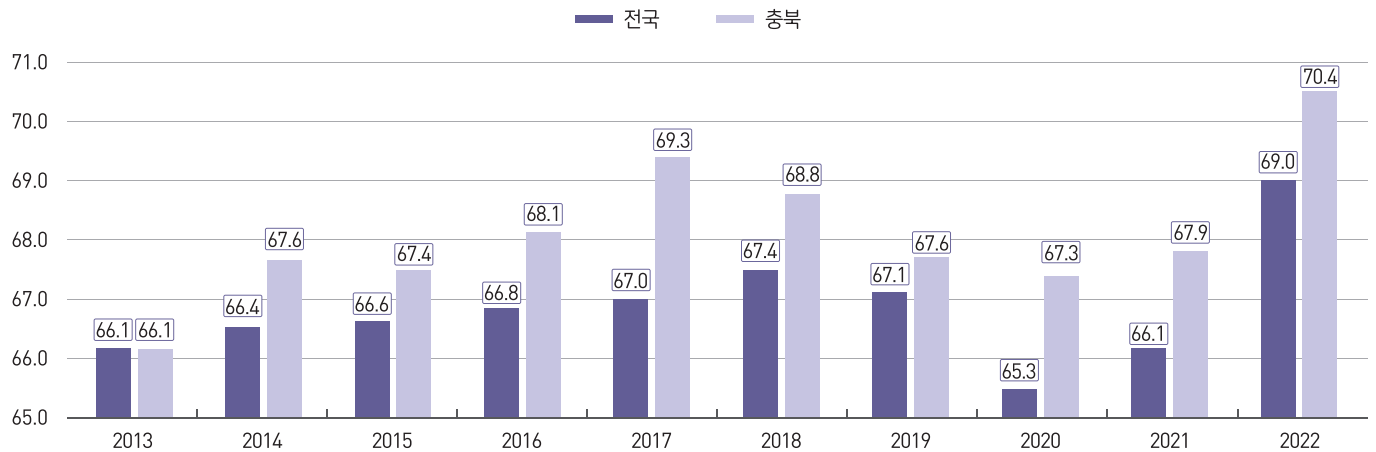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4] 시도별 청년세대 연령대별 고용률

- 2039 청년세대 연령대를 구분하여 고용률을 살펴보면 20-29세 청년 고용률은 인천(66.6%), 경기(65.0%), 충북(63.9%) 순으로 높고, 세종이 48.7%로 가장 낮음. 30-39세 청년 고용률은 제주가 83.2%로 가장 높고, 광주가 69.5%로 가장 낮음

#### 4) 전국 및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연도별 고용률 추이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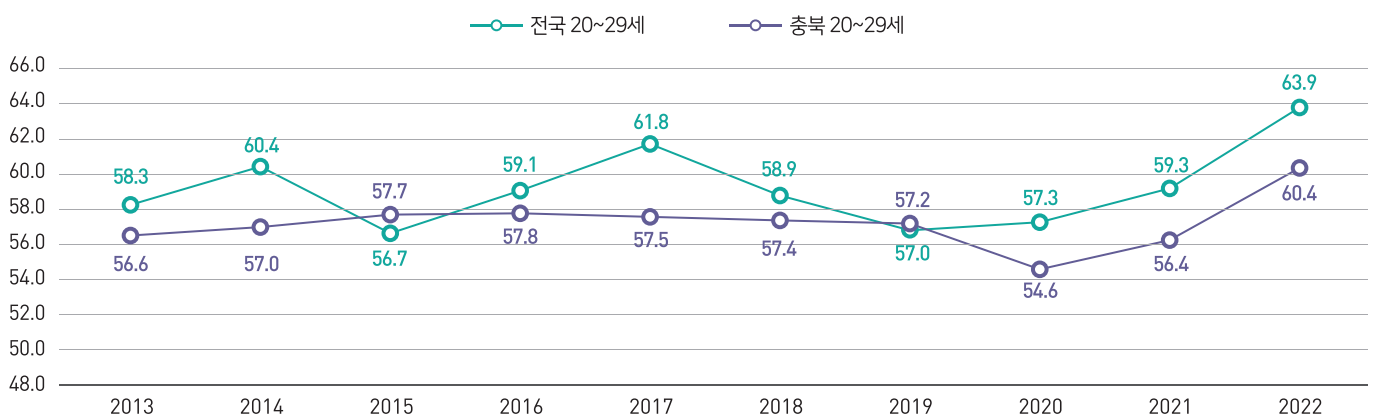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5] 전국 및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연도별 고용률 추이

- 충북 2039 청년세대의 고용률 추이를 보면,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 70.4%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('13년 대비 4.3%p 증가)
  - 전국 2039 청년세대의 고용률 추이는 '13년 66.1%에서 '18년 67.4%까지 증가 이후 2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'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('13년 대비 2.9%p 증가)
  - 충북 2039 청년세대의 고용률을 전국과 비교하면, 2013년에는 66.1%로 동일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에 비해 높은 고용률을 보이며 2022년에는 1.4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
#### 5) 전국 및 충북 20-29세 고용률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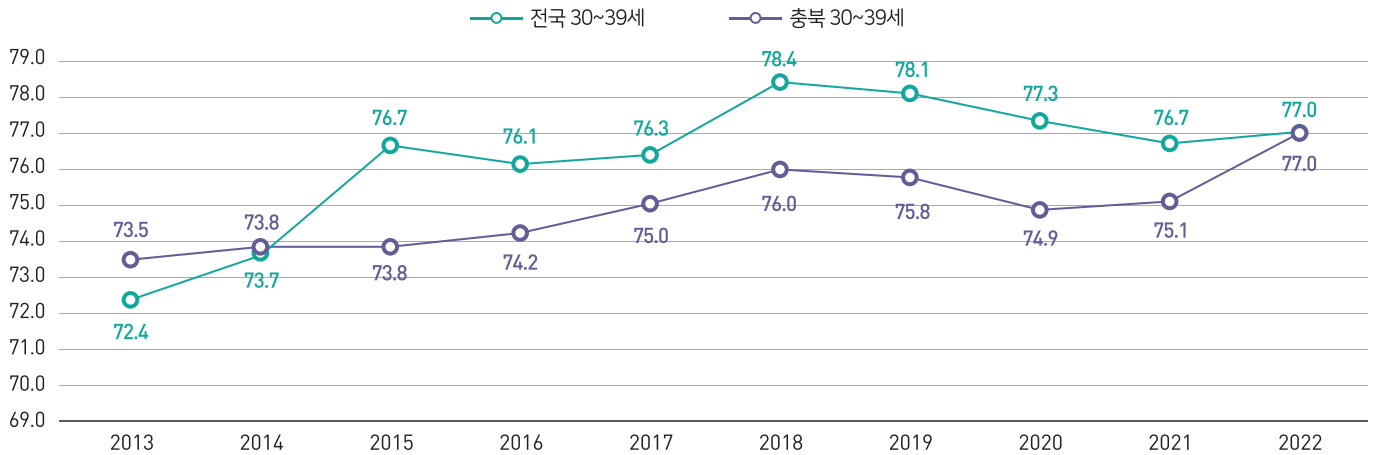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6] 전국 및 충북 20-29세 고용률

- 충북 20-29세 고용률은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
  - 20-29세 고용률은 2020년부터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, 2022년 고용률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

## 6) 전국 및 충북 30-39세 고용률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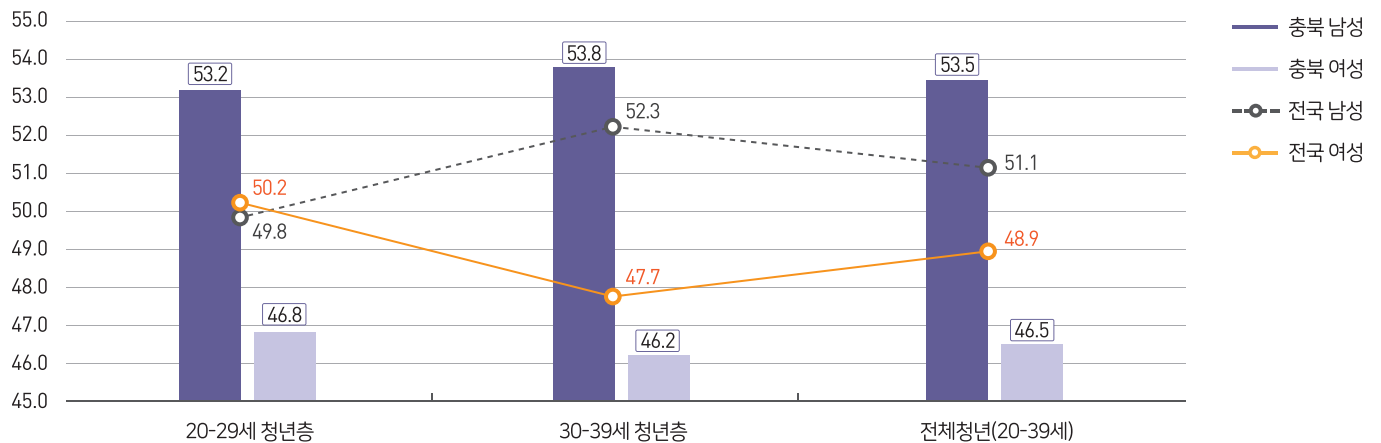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7] 전국 및 충북 30-39세 고용률

- 충북 30-39세 고용률은 '15년부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2년에는 77.0%로 동일한 수준을 보임
  - '18년 충북 30-39세 고용률은 78.4%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서 '21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 '22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

## 7) 충북 청년세대 성별 · 연령대별 고용률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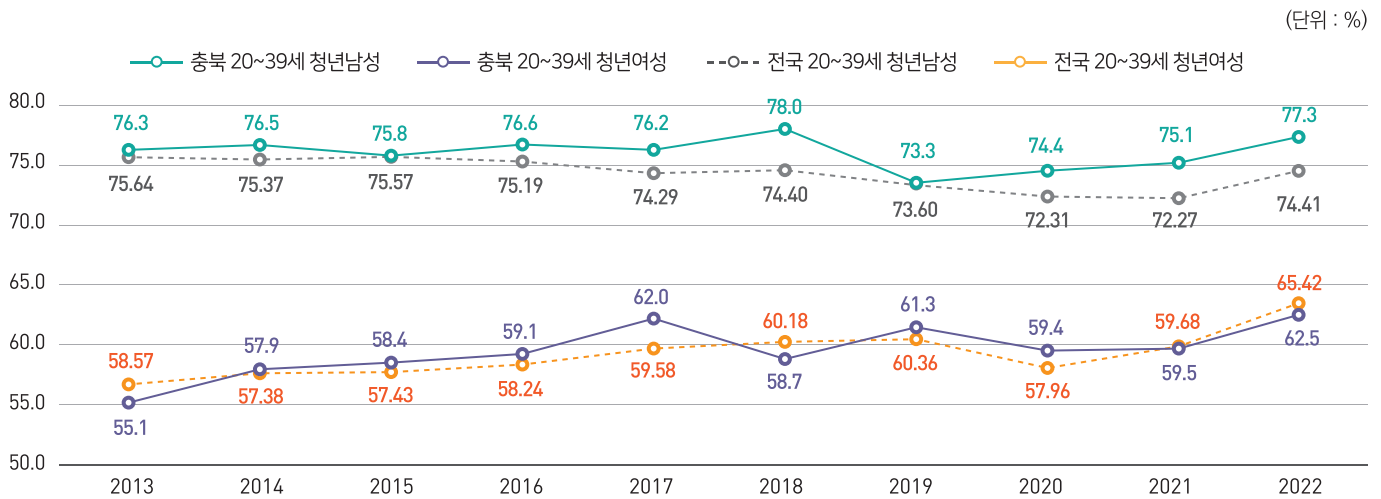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8] 충북 청년세대 성별 · 연령대별 고용률

- 2022년 충북 2039 청년세대의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(53.5%)은 전국 남성(51.1%)보다 2.4%p 높고 여성(46.5%)은 전국 여성(48.9%)보다 2.4%p 낮음
  - 연령대를 구분하여 전국 청년과 비교하면 20-29세 충북 청년의 고용률(3.4%p)이 30-39세 충북 청년 고용률(1.5%p)보다 더 큰 차이를 보임

## 8) 전국 및 충북 청년세대 성별 고용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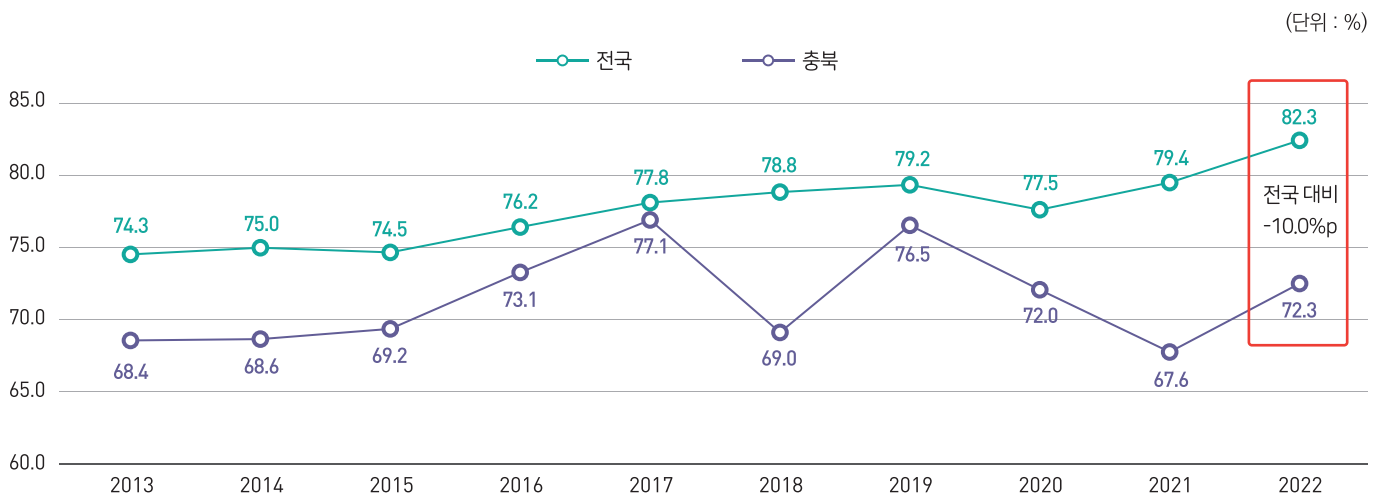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19] 전국 및 충북 청년세대 성별 고용률 추이

- 충북 20-39세 남성의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'19년을 제외하고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'19년 이후 '22년까지 매년 더 큰 격차를 보임
- 충북 20-39세 여성의 고용률 추이는 '17년에서 '18년 사이를 제외하고 전국과 같은 추이를 보임

## 9) 전국 및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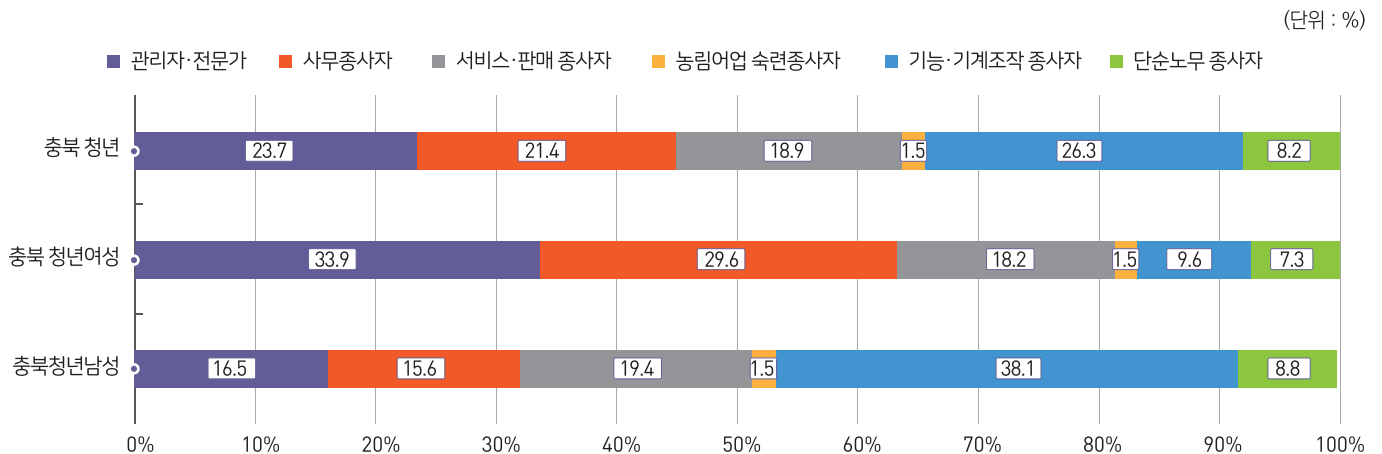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그림 20] 청년세대(15-29세)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

- 충북 20-39 청년세대의 남성 대비 여성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'22년 기준 전국 대비 10%p 낮음

## 10)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성별 · 직종별 취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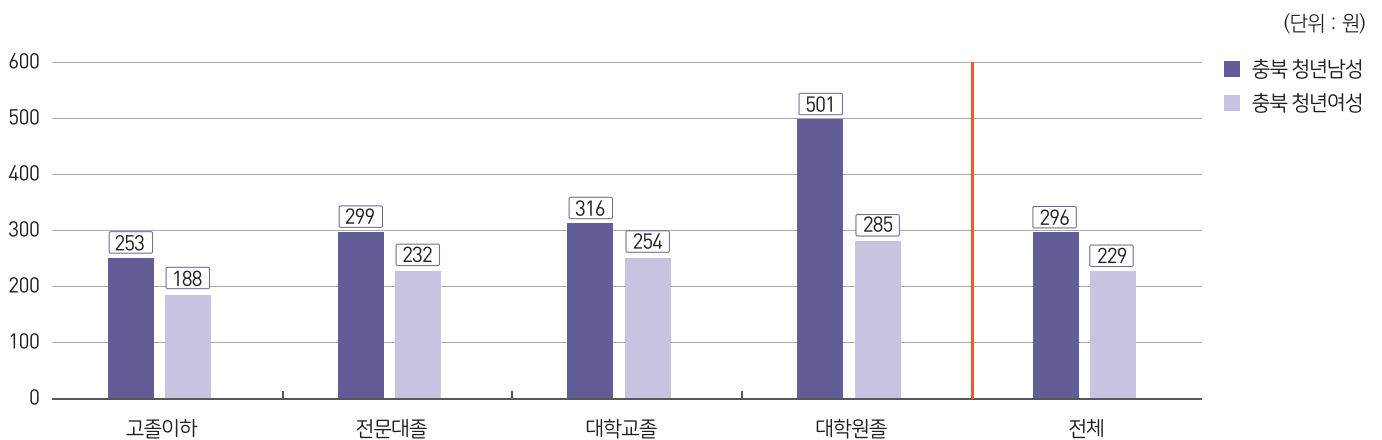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 그림 21 ]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성별 · 직종별 취업자

- 충청북도 2039 청년세대의 성별 · 직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여성은 관리자 · 전문가(33.9%), 사무 종사자(29.6%)에 편중되어 있고, 청년 남성은 기능 · 기계조작 종사자(38.1%)에 편중되어 있음

## 11)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성별 ·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



자료 : 지역별고용조사(2022)

[ 그림 22 ] 충북 청년세대(20-39세) 성별 ·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

- 충청북도 청년세대(20-39세)의 성별 ·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면 모든 교육수준에서 청년 여성의 임금수준이 청년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
  - 각 교육수준별 남녀 임금수준은 대학원졸에서 남성이 501만 원, 여성이 285만 원으로 남녀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
  - '고졸이하'의 교육수준에서만 남녀 모두 전체 임금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